

부 고

메리 에이미 MARY AMY 수녀

ND 6514

메리 루이즈 호크 Mary Louise HAUCK



미국,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

출 생: 1950 년 10 월 14 일 캘리포니아 린우드
서 원: 1971 년 8 월 7 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
사 망: 2024 년 4 월 23 일 캘리포니아 타우젠드 옥스 노트담 센터

메리 에이미 수녀의 부모는 리처드 하우크 박사와 헬렌 버지니아 하우크 부인이었다. 그들은 딸에게 메리 루이즈 호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. 메리 루이즈에게는 오빠 존 호크가 한 명 있었는데,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.

메리 루이즈는 캘리포니아 사우스 게이트에서 자랐으며, 5 학년 때 그곳의 성 헬렌 학교에 입학하면서 노트담 수녀들을 처음 만났다. 초등학교를 마친 후 캘리포니아 헌팅턴 파크에 있는 성 마티아스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이어갔는데, 이 학교 역시 노트담 수녀들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.

메리 루이즈가 수도 생활에 매력을 느낀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다. 수도 생활에 끌렸던 이유를 묻자 "수녀들의 삶이 하느님께 집중되어 있고, 한 가지에 몰두함으로써 기쁨에 찬 단순함, 타인에 대한 사랑,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발산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"이라고 답했다.

메리 에이미 수녀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도직에서 봉사했다. 서원 후에는 수년간 학교 교사로 일했고, 노트담 아카데미 초등학교 교장으로서는 행정 리더십을 발휘했다. 관구 내 리더십 팀에 부름받아 관구 참사, 관구장 등을 역임했다.

수녀는 관구장으로서 관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준회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00 명이 넘는 회원들이 카리스마를 실천하며 각 본당 내 봉사 활동과 사도직을 통해 캘리포니아 지역 수녀들을 돕고 있다. 수녀는 커빙턴 관구와 협력하여 우간다 선교회를 설립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. 수녀의 노력은 오늘날 우간다 노트담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. 수녀회 전체에 대한 헌신과 공동의 사명을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열망은 수녀가 이룬 모든 업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. 관구 리더십 팀에서 일한 다음에는 몇 년 동안 분원 책임자 및 유기서원자 지도 수녀로 봉사했다.

공동체와 관련하여 메리 에이미 수녀는 "공동체는 제가 사랑, 수용, 도전, 인도, 그리고 서원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준 통로였습니다.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, 기쁨과 슬픔 속에서 공동체는 저에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얼굴이었습니다."라고 말했다.

마지막 몇 년간은 급성 류마티스 관절염과 암으로 고통받았다. 수녀는 용감하게 고통을 견디며 하느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신뢰했다. 자신을 위해 행해진 모든 일에 감사했고 흔히 감사를 표현하곤 했다. 2024 년 4 월 23 일, 메리 에이미 수녀는 사랑하는 하느님의 손에 평화롭게 영혼을 내어 드렸다.